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성탄인사를 합시다. 메리크리스마스! 참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탄의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로 복된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내 상태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삶은 237 5000종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삶입니다. 도둑같이 오는 시간을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는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 유일해야 합니까? 유일하지 않으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게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유일한 답을 줘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 유일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이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답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를 왜 살려두셨는가, 늘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면서 우리는 전문사역을 준비하는 전문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답을 통해서 왜 불신자가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스케줄이 무엇인지, 이런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 상태의 답을 어떻게 줄 것인지 답이 나야 합니다.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영원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본론〉

1.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

▶오늘 도둑같이 오리라는 약속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해당되

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 자에게 이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에 코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것으로 마치리로다(계15:1)

사도 요한이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노도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계15:2)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신호가, 심판의 끝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코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15:3)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믿음으로 마지막에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해서 광야에 입성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도 종말적인 심판이 막바지에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15:4)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심판임을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오직 주만 거룩하신 그 분이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계15:5)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열리

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본 것이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15:6)

놀랍게도 일곱 천사가 뭘 봤습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계15:7-8)

심판이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15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도덕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토를 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진노의 일곱 대접과 그 결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계16:1)

금대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은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계16:2)

출애굽 때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연상이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쏟았더니 땅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겠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계16:3)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장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면, 드디어 지구종말로 창조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16:4-5)

재앙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무너지는 이게 어떻게 의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그 분이 행하시는 그 공의가, 수천년에 걸쳐 우상숭배했던 인생의 말로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지, 왜 의롭다고 말하는지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수만, 수억번의 말을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계16:6)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이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계16:7)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계16:8)

해에 쏟아버리니 지구 온도가 뜨거워서 타버릴 정도입니다. 서서히 지구가 망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계16:9)

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람들이 태워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던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깨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내가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계16:10)

드디어 흑암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짐승의 왕좌가 붕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계16:11)

이들이 너무 아프고 종기가 나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나라가 붕괴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계16:12) 유브라데는 바벨론의 방어선인 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16:13-14) 짐승의 왕좌에 재앙을 쏟아버리니 이들이 발악을 하면서, 귀신의 영들이 규합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총집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계16:15)

우리에게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준비되는 시점에 뜬금없이 도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상태와 자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핵심은 날짜가 아니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자세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신분과 권리, 배경을 가지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현실, 사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계16:16)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싸울 거냐?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왕들이, 흑암 세력이 집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계16: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이 말은 지구종말과 우주종말, 창조질서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요19:30과 같은 뜻입니다. 심판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날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계16:18)

이 지진은 지구가 깨지는 장면입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계16:19-20)

지구가 세갈래로 갈라지고 성들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났던지,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어집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계16:22)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입니다. 얼마나 무겁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정당성이 확증되는 모습입니다. 심판하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싸우겠다고 덤비는 흑암세력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결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다 되었다고 주님이 확증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아직도 다 안 됐다는 말이지요.

▶일곱 천사가 대접에서 봇는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 짐승의 왕좌, 유브라데 강, 공기에 재앙이 부어집니다. 이건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종말, 지구종말, 우주종말이 다 있습니다. 창조질서가 다 된 그날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한 단어로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그 사실 앞에, 다 되었다는 것이 확증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나는 영적 사실을 붙잡은 나의 상태를 날마다 유지해야겠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한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 교회
ζω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